

<4일 완성 문학 개념어- 시편>

1일 차

들어가기

서정이란

정서와 어조

2일 차

시상 전개: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시선의 이동, 선경후정, 기승전결

3일 차

심상과 운율

4일 차

다양한 표현 방식

바른 국어 다른 결과 바다국어 서성수T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주제)을 언어적으로 형상화한 것(형식)입니다

표현하고 싶은 내용과 형상화 방법은 하나로 이어지기에

형상화 방법을 설명하는 문학 개념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문학을 표현 양식으로 나눌 때 서정문학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를 세계의 자아화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서정에서는 자아가 대상과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감정 태도 인식을 보이는지 감상합니다

ex)

역에서 비바저나오면서 나무를 봤다

웁직이던 흔적만 남아있는 나무

힘들게 웁직이다 굳어진 나무

아니

다시

웁직이는

*이때 나무는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이 아닙니다

나무라는 대상은 화자에게 힘든 상황에 고통 받았던 대상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의 대상 혹은 자기 자신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서'를 파악하는 것이 서정 문학 독해의 핵심이며

이 정서가 어떻게 언어적으로 형상화& 구체화 되었는지 파악할 때

문학을 더욱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정서)

- ① 정서와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조
- ② 시인의 정서, 생각, 주제의식인 시상이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시상 전개
- ③ 정서를 표현하는 이미지와 관련되는 심상
- ④ 시의 특징인 리듬감을 보여주는 운율
- ⑤ 마지막으로 표현상의 특징 같은 형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됩니다.

+ 서정 문학 자세히 보기

시는 기본적으로 인상 깊은 찰나, 순간의 장면을 그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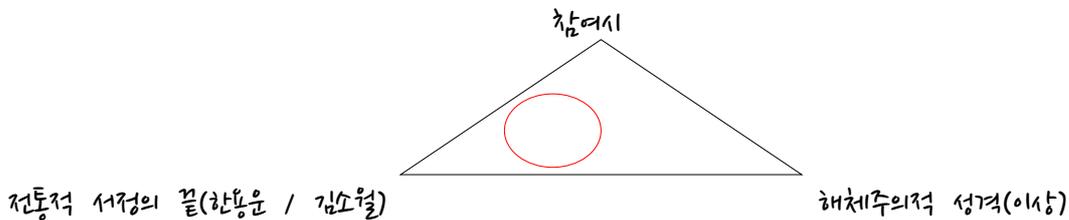
이러한 장면을 비유 묘사 상징 사실적 서술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정서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형상화 방법과 정서에 있어서 대략적인 구분이 가능합니다

한쪽에는 한용운과 김소월이

또 한쪽에는 이상이

이 둘의 중간에는 참여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서정과 해체주의적 성격을 구분해서 공부하고

참여시는 별개의 축이라기보다는 현실의 변화, 현실 참여적 성격의 내용에

전통적 서정의 형식과 기본의 정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 서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존재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외부 대상에 대한 사랑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부 대상은 임금, 지아비, 님, 절대자, 절대적 진리,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대상 등 다양합니다

형식의 측면에서는 전통의 율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시어의 선택과정, 비유 묘사 상징의 형상화도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 구절만 봐도 딱 감이 오시죠?

반면 해체주의적 성격이 있는 시에서는 정서(내용)와 형식(형상화 방법) 혹은 둘 다에서 변화!

대표적인 경우가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시를 어렵게 느끼는 것이다

실제 아버지에 대한 인식 등의 해석도 작품의 텍스트만을 가지고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면

내용의 측면에서는 욕망의 좌절을 말할 수도 있고- 기형도의 늙은 사람 등

사회에서 주체의 객체화되는 현실에서의 외로움과 쓸쓸함

어떤 대상이 너무나도 낯설게 보인다는 느낌

종교 사랑 모성애 등 기존의 숭고한 가치에 대한 의구심

자신의 인생 혹은 존재에 대한 회의 등 매우 다양한 정서가 등장하며

형태의 측면에서도 전통의 율격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이고

(오린지 기하학)

위치 A, Topological Eye (White)

커피잔(A) 발생한다

말한다(B) 이 도넛 참 먹음직스럽군

말한다(C) 그건 탄환에 관통된 네 머리야

시의 선택에 주의하는 것이나 세심한 비유 묘사 상징을 사용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ex) 최승자의 *눈*을 위하여

너는 나를 버렸지

이젠 헤어지자고

너는 날 버렸지

산속에서 바닷가에서

나는 날 버렸지

(중략)

널 내속에서 다시 날고 말거야

내 아이는 드센 바람에 불려 지상에 떨어지면

내 아이는 드센 바람에 불려 지상에 떨어지면

내 무덤 속에서 몇 달 단 파스하게 지내다

또다시 떠나가지 저 차가운 하늘 바다로,

오 개새끼

못 잊어!

시어의 선택과 비유 묘사 상징을 통한 형성화의 차이는

황현산 비평가의 잘 표현된 불행의 설명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 서정주 VS 진은영

서정주

순이야, 영이야, 또 돌아간 밤아

굳이 잠긴 잿빛의 문을 열고 나와서

하늘가에 머무른 꽃봉오리를 보아라

한없는 누에실의 울라 날로 저 늘인

채일을 두른 듯, 하늘한 하늘가에

밤을 부비며 열려 있는 꽃봉오리를 보아라

순이야, 영이야, 또 돌아간 밤아

저,

가슴같이 따뜻한 삼월의 하늘가에

인제 바르 숨쉬는 꽃봉오리를 보아라.

진은영

위대한 악을 상속 받았던 도둑들은 모두 사라졌다

밤 속에 가득하던 전갈들도

혼자 바닷가를 걷다가

바위와 바위 사이 구멍에 끼인 발

부어올라 비하지 않는,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

검은 비닐봉지조차 가끔은

주항 지느러미가 빛나는 금붕어를 쫓아낸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이런 예언을 듣고

모든 표정이 사라지는 한방중에

두 시는 모두 내용(주제 or 정서)에 있어서는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익숙한 내용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시어의 선택을 보면 검은 비닐봉지를 사용한 진은영의 시와

순이야, 영이야, 또 돌아간 남아처럼 음성모음에서 양성모음으로 이어가는 서정주의 시는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비평가는 전통적 서정의 형식은 잘 만들어진 말이 정서를 조직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의 이미지와 함께 정서가 불쑥 튀어나온다고 했다

cf) 문학 개념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지점

문학 개념어 공부는 개념 설명- 실전 기준점- 작품 적용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자료는 개념 설명과 실전 기준점에 집중한 개념 자료입니다)

문제는 작품에 적용할 때 발생합니다

어떠한 부분이 무조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준점을 수정하거나

나름이 기준점을 다시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문학 개념어는 기본적으로 정서 파악에 중요한 부분 그 중에서도 명확한 부분을 묻습니다

명확한 기준점과 어떠한 부분은 받아드릴 수 있는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ex) 대화체와 독백체

대화체는 말을 건네는 말투로 주로 경어체나 누군가를 부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야와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주 등장한다

실제 대화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대화의 형식으로 등장한다

죽은 대상 즉 화자와 청자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는 상황이나

청자가 식물 등이라 묵묵부답이고 반응과 대답이 없을 때 실질적 독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독백= 독백체= 독백적 발화로 말투와 독백이 구분되지 않고 다른 개념도 애매

실제로 '독을 차고'에서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흠어버리하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험하고"처럼 '간접

인용'된 경우 이 경우에도 대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 하지 말아야 하는 고민이다!, 실제 다른 해석의 교재들이 존재

ex2) 시간의 경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시에 드러난 정서, 주제의식, 생각으로 시상이라고 한다,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는 시인의 정서

와 생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사물 사건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시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다

이중 가장 애매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는 아침, 봄, 과거 등에 가진 생각과 정서가 저녁,

여름, 현재, 미래 등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되는가를 서술할 때 주로 등장하는 선지이다

실제 시험에서는

주로 서술어의 종결어미와 함께 가는 과거 회상 현재 미래이나

운동주의 자화상처럼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시간의 흐름과 경과를 보여주며

이에 따라 시인의 정서가 유지, 심화 혹은 사물 사건 상황이 변화되거나 서술되면 시간적 전개로 문
제에 등장한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시상 전개는 '어머한' 부분이 많아

기본 기준만 생각하고 그 범주를 넓게 유연하게 생각해야 한다

기본기준은 우선

하루, 계절, 자연물의 변화에 맞춰 정서가 유지 심화, 사물 사건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서술하는
것

회상과 서술어의 종결어미를 활용해서 보여주는 과거에는 어떠했고 현재는 어떻게 미래는 어떤 것이라
는 경우도 시간의 흐름이며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 기준점입니다(운동주의 자화상)

이런 것들이 시간적 전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여기에 좀 더 넓게 시간의 경과, 시간의 흐름, 시간의 변화에는

명징한 표현& 상황의 변화(너와 헤어지고 30년이 지났다, 꽃들이 점점 사그라져 꺼졌다)

배경의 변화& 시간의 이미지화가 있지만(해가 떴다- 해가 졌다, 노루꼬리 해가 꼬리를 집으니)

가 좀 주의할 내용이며

지난 가을 사이로 보이는 오늘의 부끄러운 축수가

나는 시집 살이 9년했다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다

결국 시간적 경과 자체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와 구분해서 나오기 어려우며

그 자체도 사물과 상황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지만

주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정서가 변화 유지, 사물 사건 상황이 변화되거나 서술될 때 시간적 전

개로 선지에 등장한다

ex1) 기화로 확인하는 시간적 전개 박남수, 아침 이미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리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시간적 전개

ex2) 와사등

긴 여름해 황망히 내려를 잡고(이 자체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 시각적 이미지화)

늘어선 고층 창백한 모석 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긴 여름해가 날개를 접는 것에서 시간의 경과가 이미지화,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cf) 묵호항

나는 실로 이십 몇 년 만에 고모부를 찾았다

고모부는 질퍽한 동해에서 돌아와 무덤 속에 잠들었다

폭풍이 치고 온 산과 바다가 울고

독도 바깥 대화퇴 잠든 어장을 우산으로 가리며

늪은 고모의 등이 젖지 않게

나는 우산대에 박쥐처럼 붙어 눈물을 떨어트렸다

- 실질적인 시간 흐름이 잘 느껴지지 않음

감성의 핵심인 시는 시의 주체가(화자)

시적 상황(제목, 제재, 배경, 이야기,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감정과 태도를 지니는지 파악하는 것, 이것이 정서와 주제와 연결

여기서 정서의 양상을 보여주는 개념에는 어조가 있다

<태도와 어조>

① 긍정 부정- 가장 넓게 보기, 긍정적

살은 아름답다 삶은 고통이다

② 동경 예찬-

동경은 어떤 대상을 매우 그리워하며서 높이 평가하고 원하는 것

예찬은 어떤 대상을 높게 들어 매우 좋아하는 것을 말한다, 둘 다 매우 좋아하고 높게 평가

자연에 대한 동경, 자연에 대한 예찬, 이상향에 대한 동경 등으로 등장한다

+ 동경의 정서가 드러난다면 상황은 부정적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식민지 현실에서 현실 고통 이상향에 한 동경

산업화 과정에서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따뜻한 고향에 대한 동경 등이 있다

③ 귀의, 합일, 친화

합일 혹은 자연친화적 정서 혹은 상황에 대한 만족감

귀의는 그 대상과 하나되어 그 대상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을 주로 절대자에 대한 귀의로 자주 등장

합일은 아예 하나가 되는 것을

친화는 그 대상과 잘 어울리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대상은 자연에 대해 예찬하고 동경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

④ 희망

희망은 현재보다 더 나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황이 좋지 못한 경우에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상황과 + 인식

⑤ 절망 체념 비판-

부정적 상황에 극복이나 해결도 어렵다고 보는 것,

단순하게 부정이라고 해서 절망 체념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

부정적 상황에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혹은 이것은 '운명'이다 같은 정서가 느껴질 때

절망, 체념, 비판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상황에 -인식 -의 끝판왕

만약

끝없는 어둠에 침전하는 길에 나 홀로 있다, 태양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 길을 찾아 떠난 사람은 다
시 이곳으로 왔다, 절망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⑥ 한탄 자조 회한

한탄은 후회스럽거나 복받치는 상황에서의 느낌,

자조는 개인에 대한 비웃음, 회한은 regret으로 돌이켜 한탄하는 것이다, 주로 지난간 과거에 대한

회한, 부정적인 현실과 그 속의 흔들리는 자신에 대한 자조 등으로 등장한다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이다.

⑦ 회의 비판 냉소

회의는 계속 의심,

비판은 대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는 태도

냉소는 쌀쌀한 태도로 내상을 입힌 여기며 비웃는 것이다, 자조는 개인에 대한 비웃음이 핵심이라면

냉소는 주변의 대상, 그들의 목표, 사회, 사회적 현실 등 외부의 대상에 대한 비웃음과 부정적인 인
식이 핵심이다.

결국 현실이 더 나아지기 어렵다는 것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이다

⑧ 관조 성찰

관조와 성찰은 정말 자주 등장하는 어조이다, 관조는 주관에 배제한 채 대상을 관찰,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관찰해서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 대상이나 주체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관조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많이들 어려워하는 개념이라 여기서도 예시를 하나만 보자!

ex) 기쁨- 일흔

벽이 무너지라고 읊는다- 이것이 노인을 관찰하는 것이라도 주관에 배제한 관찰, 고요한 마음으로 하는 관찰이 아님으로 관조적 태도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성찰은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

관조의 핵심은 주관 배제, 고요한 마음으로 작품에는 대상이나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자!

ex2) 이육사의 절정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껴 디딜 곳조차 없다

어조와 관련해서는 정서뿐만 아니라 말투와 표현상의 특징으로도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말투와 관련한

① 담담과 격정적 어조는

정서 표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로 구분되며

격정적 어조의 경우에는 정서 표현이 여러번 등장하고 이에 맞춰 형식은 주로 의문형 종결, 명령형 종결, 감탄형 종결, 청유형 종결, 동호법 등이 활용된다.

핵심은 정서가 적극적으로 드러나는지 여부이다

한 번씩 정서가 직접적으로 서술될 수도 있고 의문 명령 청유형 종결이 등장할 수도 있다

ex)윤동주의 시-

쉽게 씌어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삭거려

육척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풀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늪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척방은 밤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볼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담담한 어조

또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② 바로 독백체와 대화체이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나 교재마다 설명이 다양해서 정확도는 좀 떨어져도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과 조금 더 엄밀한 관점 또 이와는 다른 설명까지 보자

가장 쉬운 관점은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되었는지의 여부로 나누는 것이다.

쉽게 구체적 청자가 설정되었는지 않다면(돈호법~아/2인칭 대명사 너 너희 그대 등/어머님)

독백으로 봐야한다, 여기서는 우선 독백체와 독백을 하나로 보자

다만 구체적인 청자가 있지만(니, 당신) 그 대상이 화자와 같은 공간이 아니라면
또 대상이 식물 등이라 묵묵부답이고 반응과 대답이 없다면 독백으로 봐야한다

대화체는 구체적인 청자가 있다는 것이 기본으로
청자의 반응이 있는 말을 주고 받는 대화가 있고
그냥 대상을 부르지만 하고 그 반응은 나와있지 않은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다
죽은 남을 부르는 경우에서 알 수 있듯 말을 건네는 방식은 독백체이면서 대화체
시험장에서는 대화 구성= 대화 형식= 대화로 읽어내면 된다

가장 일반적인 틀을 정리하자면
구체적인 청자가 없거나 그 청자가 있더라도
그 대상이 있더라도 화자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나뭇배 당신은 행인)
혹은 청자의 반응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독백
대화의 형식과 대화적 구성 대화는 실제 말을 주고 받아야 한다
어떠한 예시를 보자면

ex1)항단아 그내줄을 밀어라- 말을 건네는 방식
청자가 묵묵부답, 대답이나 반응이 없고 대화가 진행되지도 않기에 독백으로 볼 여지가 있다
대화체로 보는 자론도 존재(화자와 항단이는 같은 공간, 청자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이때 부르고 있다면
말투로는 대화체이다)- 천재교육

ex2)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늘 안녕히 계세요
화자 앞에 도련님이 존재한다고 보기에든 근거가 부족, 구체적 반응도 없어서 독백으로 볼 여지
대화체로 보는 자론도 존재(경어체가 크다)

cf)명확한 해설 소개 K100 국어 연구소

우선 체 즉 문체에 집중해서 독백체와 독백을 구분(다른 자론에서는 독백= 독백체= 독백적 발화)
체는 어투, 특성, Style으로 이해하면 된다, 설의법을 쓰면 주로 독백적 문체이다
대화체는 경어체를 중심으로 뭐건 뭐라카노 등 일상적인 어투가 특징이다
이렇게 문체를 구분했다면 다시 독백의 상황과 청자가 설정된 상황을 구분한다

독백의 상황은 청자가 없거나 화자 앞에 청자가 없는 상황이고

청자가 설정된 상황은 화자 앞에 청자가 존재하는 상황 반응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 기준점을 가지고 2x2 매트릭스를 통해서 기존의 문제를 모두 설명한다

몇 가지 예시만 보자면 박목월의 이별가에서 니 무라카노의 경우에는

화자 앞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독백의 상황, 어투는 대화체로

꽃밭의 독백 사소단장에서 문얼어라 꽃아 문얼어라 꽃아의 경우에는

화자 앞에 청자가 설정되어 있는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부르고 있기에 어투는 대화체이다

김영랑의 독을 차고에서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흠어버리라 한다 허무한디처럼

대화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대화 대화적 구성 대화의 형식이고 이때는 대화(체)로 보자

직접인용이든 간접인용이든 청자가 설정된 상황이고 이 청자가 화자 앞에 있던 것

다만 간접인용이라면 독백체의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자른에서는 이때 문체를 구분하지 않았다

신경림의 나무를 위하여에서 왜 무섭지 않으랴 나무들아는 직접 부르고 있기에

말을 건네는 방식이고 이때 문체는 대화체이다

자른에서는 화자 앞에 설정된 청자(나무)로 인해 청자의 설정이라는 상황으로 보았다

*(중요)

독백체와 독백을 구분한 접근은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청자를 부른거나 말을 걸어도 묵묵부답인 상황, 대답이나 반응이 없는 상황을 독백의 상황으로 처리하는

많은 설명을 고려할 때

또 꽃밭의 독백을 실질적으로는 독백으로 보는 많은 교재를 볼 때

청자를 부를 때 화자 앞에 있어도 묵묵부답이면 독백으로 보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때는 대화체이자 독백으로 보자.

<시상전개 양상>

시상: 시인의 생각이나 정서, 주제의식, 혹은 시를 짓기 위한 착상이나 구상을 의미
시인의 생각과 정서라고 생각하면 편하고 이러한 생각과 정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즉 시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사건 상황 사물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시 전반의 구조가 무엇인가가 바로 시상 전개
너와 헤어지고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너를 그리워한다는 정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를 알 때 더 명확하게 감상할 수 있다
고전 문학의 경우에는 갈래적 특성- 기승전결 등이 시상 전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 이해를 위한 시

어린 시절 어두운 밤하늘을 보며 순이 누나는 길을 나섰다

별들도 떨어던 그때 나는

누나를 부르며

별 옆에서 같이 떨어졌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순이 누나는 아직도 18살

별과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고

떨림조차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순이누나는 그 모습 그대로 길을 나선다

들리지 않는 외침으로 나는 누나를 부른다

아직도

별은 흔들린다

만약 이런 시가 있다고 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를 통해서

어두웠던 밤하늘과 배는 별로 대표되는 부정적 현실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과

여기서 화자는 누나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 찾고 있다는 것이 서술된다

이러한 시상 전개에 경우에는

가장 헛갈리고 주의할 부분이 많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화자가 직접 움직여야 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시선 이동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선경후정(특히 고전에서 주의하기)

기승전결

대조(의미의 대조- 상황과 공간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연상- 중요하지 않음) 등을 기억해야 한다

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핵심만 즉 시간적 전개만 보고

나머지는 추가로 기억하는 편이 낫다

시간적 전개는

아침 점심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과거 현재 미래(회상과 서술어의 종결어미), 행위의 반복을 통해
서 정서가 심화되거나 변화하는 것

혹은 사건 사물 상황이 변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봄에는 꽃이 피었고

여름에는 녹음이 무성하고

겨울에는 다시 눈이 내린다 혹은

너와 헤어졌다

편이 흘렀지만 아직도 나는 너를 그리워한다

나는 앞으로도 너를 그리워 할 것이다

일생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리로워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

지금 바람에 흔들린다(서술어의 종결어미와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 행위의 반복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의 중요한 구조이다

몽상아 꽃을 계속해서 물들이는 과정을 말한다거나

자기 자신의 성장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은 모두 시간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 시간 경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서가 변화, 유지 혹은 사물 사건 상황이 변화했는지까지 보지 말고 시간이 경과했는지만 살펴보기, 당연히 앞의 내용은 포함하고 여기에

너와 헤어지고 30년이 지났다, 초콜이 점점 꺼졌다- 명시적 표현& 상황의 변화

해가 떠있다가 달이 떠있다, 긴 여름해가 날개를 접는다- 배경의 변화& 이미지화 등이 시간적 전개 보여준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경우도 거의 없으며 시간적 경과 자체가 사물과 상황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지만 실 전에서는 이 경과에 따라서 정서의 심화와 유지, 사물 사건 상황에 대한 생각이 변화 진술되는 것이 등장

+ 나는 24년 만에 고향에 왔다, 나는 시집살이가 9년했다도 마찬가지, 지난 가을 사이로 보이는 오늘 의 아픔 등은 시간의 흐름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②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화자가 직접 움직이는 모습이 등장해야 한다,

단순한 시선의 이동과의 차이는 이렇게 직접 움직이는가에 달려있다!

관동별곡에서 어디를 나와서 어디로 돌아드니를 중심으로 기억

③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구체적인 시선의 이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위에서 아래로 혹은 좌에서 우 등으로 실질적인 시선 이동이 있으면 된다!

복도를 보다가 운동장을 보고 얼굴에서 눈을 보다가 입을 보고 하는 것 등은 모두 시선의 이동

원경과 근경으로 자주 등장하며

선경 후경도 외경에서 내경으로의 시선 이동으로 볼 수 있다

④선경후경

앞 부분에 정서를 제시하고 뒤 부분에 화자의 정서 즉 감정 태도 대응 인식 가치 깨달음을 제시함
한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징으로 이는 외경에서 내경으로 그 시선이 이동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⑤ 기승전결

4연짜리는 이해를 위해서 기억

기의 경우에는 자연을 제시하면서 시상 즉 시를 짓기 위한 구상과 착상, 시인의 생각과 상념, 주제 의식, 정서를 불러일으킴,

승에서는 시상을 진행& 전개,

전 시상의 변화와 전화, 대동강 물은 언제 마를까?

결은 시상의 마무리 주제 제시

cf) 초중종장 혹은 향가의 경우에도 자주 등장하는 기서결복습

화제를 제시하는 것

제시된 화제를 구체화하는 것

의미를 제시한 것!

cf) 기억할 고전의 시상 전개

향가- 주로 화제를 제시하는 기, 제시된 화제를 구체화하는 서, 의미를 부여하는 결로 구성,

한시- 주로 선경 후정, 자연 정경을 그리며 시상을 불러일으키는 기, 시상을 발전시키는 승, 시상에 변 화를 주는 전, 시상을 마무리 지으며 주제를 담고 있는 결로 구성됨

⑥ 대조

대조적 이미지의 활용이 대표적,

대조는 표현 방식에서 봤던 것처럼 둘을 견주어 반대되는 내용을 드러내는 것으로

차이점이 핵심이다, 넓이 있다가 넓이 가버린 대조적 상황

넓이 있던 공간 즉 현재 넓이 부족한 공간과 넓이 가버린 공간 즉 현재 넓이 있는 공간 같은 대조적

공간이 구체적인 선지로 자주 등장한다

생성과 소멸, 정적과 동적, 상승과 하강 등의 이미지 대조를 여기서 한번 파악하자!

<이미지-형상화>

시는 시인에게 인상 깊은 순간의 장면을 다양한 비유 묘사 상징 같은 표현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정서가 드러난다

정서를 구체화하고 형상화하는 것은 문학 특히 서정문학의 기본이며

이 형상화에 따라 정서가 나타나는 양상도 달라진다

cf)생각과 정서는 모두 추상적인 것이다 이것을 오감 즉 미각 촉각 후각 청각 시각 등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구체화하고 하고 형상화는 특히 시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실제로는 형상화나 구체화나 오감으로 지각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형상화에는 비유 묘사 상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를 읽고 마음 속에 떠오르는 구체적인 상 이것이 이미지

이 이미지에겐 감각적인 이미지와 상징적인 이미지로

감각적인 이미지는 시각을 중심으로 미각 청각 후각 촉각 공감각(vs 복합감각)을 기억하면 된다

우선 상징적 이미지는 추상적인 관념도 떠오른다는 것만 기억하자

구체적으로 넘어 그 강을 건너시네는 넘어 죽음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상기시킨다

물론 문직임이라는 측면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형상화하기도 한다

감각적 이미지는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상이 오감을 자극하고 오감으로 지각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시각의 경우에는 색깔, 모양(+의태어), '문직임', '상태'+- 시각적 이미지는 기본

청각은 의성어

미각은 맛

촉각은 시원하다 차갑다 따뜻하다 쓰라리다

후각은 냄새

공감각은 한 대상에 두 가지 이상의 감각

다만 시각에서 주의할 것은 태양이나 복숭아꽃 같은 대상은 색채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모든 명사를 또 시각적 이미지로 처리하면 달콤한 사과를 공감각적 심상으로 봐야하는 문제가

가 발생. 이때는 자연물을 그저 대상으로만 볼 수도 있다

실제 시험에서는 주로 명확한 색채어와 함께 등장한다, 붉은 태양의 향기 등

심상과 관련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공감각적 심상, 심상의 전이

핵심은 한 대상에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결합

푸른 종소리가 대표적이고 태양의 울림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향기로운 장미 같은 경우 장미 자체는 시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지만 위의 경우에는 공감각보다는 후각으로 본다

공감각의 경우에는 복합감각과의 개념적인 구분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심화시키면 좋는데

복합감각은 한 대상에 하나의 감각이 결합하고 이것이 여러 개

붉은 꽃과 퍼져가는 울음 소리를 생각하면 가장 쉽다

<운율>

운율은 그 핵심이 반복 특정한 음운이 되었든, 특정한 위치에 일정한 음운의 반복이든, 시어 시구 시행의 반복이든, 통사구조의 반복이든, 일종의 통사구조의 반복인 수미상관이든, 음성상징어의 사용이든 무엇이든 반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반복법을 정확하게 암기해야 한다

cf) 반복법 미리보기!

같거나 유사한 음운, 시의 구절, 시행, 통사구조 등이 두 번 이상 등장하는 경우 반복법

한반중 먹반중

어 여 까 리 같은 말소리

소리하고 같다 ~ 소리하고 같다 모두 반복법이 사용된 것, 유사함에 집중!

얼거법과 대구법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해를 심화

얼거는 비슷한 말을 나열하는 것으로 위에서 어 여 까 리 같은 말소리는 얼거로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3개 이상 반복과 얼거는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벵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영영 변해버린 벵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영영 떠나버린 벵도 있다- 통사구조의 반복, 얼거

다만 같은 구절의 반복은 얼거가 아니라 반복으로 본다.

대구법의 경우에는 짝이 있는 유사한 구절은 나란히 배열(어제가 비슷한 구절을 짝을 이뤄 배열) 하

는 것으로 변화주기의 일종이다. 핵심은 두 구절이 짝을 이루기에 길이나 문법적 형식(조사와 어미) 같거나 유사한 구절을 바로 이어서 배열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절은 구와 절로 어미가 같다고 구절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때는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봐야한다

운율은 압운과 율격을 전부 일컫는 말로

율격은 소리의 반복으로 시행의 제일 앞이든 중간이든 뒤이든 소리의 반복인 두운 요운 각운을 중심으로 기억 율격은 소리의 고저 장단, 문장 구조 등의 반복으로 기억하자

이렇게 특정 자음과 모음의 반복, 특정 위치에서 일정한 음운의 반복인 운과 소리의 고저 장단 강약 음 수 음보 등의 반복인 율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운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양상이다

크게 특정한 음운의 반복(갈래 갈래 갈린 길), 특정한 위치에서 일정한 음운의 반복(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음, 각운 정도)

시어 시구 시행의 반복

통사구조의 반복(주어+목적어+서술어 등, 실제로는 조사나 어미가 매우 유사한 경우가 등장한다. 통사구조의 반복은 대구법과는 다르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능하다)

음성상징어의 활용 등이 있다

cf) 알고 넘어가면 좋은 논문 내용- 압운의 심화

운율 음위율 즉 특정한 위치에 일정한 음운이 반복되는 것으로 정리한 기준의 관점에서

한 행 안에서도 볼 수 있고- 길 끝 값 각이 곡이 난다- ㄱ의 반복

행 사이에서도 같은 소리를 더 확장해서 볼 수도 있다는 것-

음운의 반복은 물론 음운(ㄱ) 음절(결) 시의 구절(학생은, 살아있다) 등으로 확장

<표현상의 특징>

비유하기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빗댄 것 즉 어떤 대상과 현상을 다른 대상과 현상에 빗댄

① 직유: 처럼 인양 등이 같은 표현이 직접적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하는 것

ex) 너는 꽃처럼 아름답다 너라는 대상을 꽃에 빗댄 것

cf) 처럼 인양 등이 같이 같은이 쓰여도 직유로 보기에 어려운 사례- 국립국어원 질문
빛나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마치 그들을 오라는 듯이 두 팔을 벌리는 것이었다는

직유인가요? - no

듯이 같이 같은 직접 연결하는 말이 사용되었다라도

기본의 비유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이를 비유로 처리하기는 어렵다

철수가 아픈 듯하다, 철수가 아픈 것 같다는 비유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무지개= 오라고 하다가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다만 의인이나 활유 같은 다른 비유로 볼 수는 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는 마음이라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디 쉬게 마음= 찢어지다

이렇게 빗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직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마음을 찢어질 수 있는 대상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② 은유는 a는 b 의 b a인 b 등의 구조를 통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하는 것

처럼 인양 등이 같이 같은 연결어가 없다

ex) 내 마음의 호수

③ 의인과 활유

의인은 사람이 아닌 대상에게 인격적 요소 즉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하거나 사람만의 신체 부위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의인의 해석은 사람이 아닌 대상이 사람처럼 의지, 생각,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람의 신체 기관인 '손', 사람이 쓰는 '말'도 의인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꽃이 슬피 운다처럼 감정이입될 수 있는 표현이나

꽃이 손을 흔든다 같은 표현을 기억하자

활유는 무생물을 생물(식물을 동물로, 무정명사를 유정명사)로 표현하는 것이다

무생물에는 바위를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하자

바위가 달려 나간다가 익숙한 구절이더라

꽃이 손을 흔든다의 경우에도 의인과 활유가 사용되었다고 본다, 식물은 무정명사로 손을 흔드는 것은 동물 같은 유정명사의 행위이다

// 고3이라면 여기까지만 보면 된다

④ 대유는 부분이나 관련있는 속성을 통해서 빗대는 것, 벉둑에서 한라까지, 무궁화

어렵다면 일제를 기억하기! 일부를 통한 비유 바로 제유, 내신이 아니고야 귀분하는 것은 나오지 않는다

⑤ 의성법과 의태법은 음성상징어를 활용한 것

사람이나 동물 등의 대상의 소리, 모습, 모양 추상적인데 이를 사람의 소리로 비유한 것이 음성상징어 이 둘 사이의 유사성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의성법은 의성어를 통한 비유법, 의태법은 모양이나 모습을 보여주는 의태어를 통한 비유법을 생각하면 된다

펄럭펄럭 보글보글의 경우에는 의성이면서 의태어

반짝반짝- 모습을 보여주는 의태어

⑥ 중의법: 수양산 등의 구절은 수양대군과 실제 고사의 수양산으로 해석되더라 이러한 중의법은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⑦ 풍유법:

풍유법은 비유하는 말만 써서 그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 원관념 없이 보조관념만 쓰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속담과 격언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풍유법은 알레고리, 우의법, 우화법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다된 밥에 재뿌린다, 이솝우화 등을 보면 알 수 있듯

표면적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에 차이가 발생한다

보조관념만 등장함에도 이것을 상징과 구분할 수 있는 배경에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1대 다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 있다.

변화주기: 서술에 변화를 주어 표현의 단조로움을 피하는 방법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가장 많이 암기할 부분은 반어와 역설의 구분!

① 반어: 영어로는 아이러니, 잘못된 상황에서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표적

반어를 거짓말과 동치로 보기보다는 '의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다르다는 것' & '이 사실을 화자와 청자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것' 즉 선의의 거짓말의 경우에는 화자가 알기에 반어라고 하기는 어렵음
그리고 이러한 반어는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적 반어, 언어적 반어

현재의 상황 혹은 기대한 상황과 정반대인 상황적, 구조적 반어로 나뉜다.

흔히 잘 못했는데 참 잘했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표현적 반어이고

운수 좋은 날에서 김첨지가 운수가 좋았던 하루와 반대되는 아내의 죽음을 목도하는 것이나

신경림의 농무에서 힘든 상황에서 춤을 추는 것은 기대하는 상황, 현재의 상황과 리리되는 행위

심정전에서 딸이 죽으로 가기 전에 차려준 음식을 기쁘게 먹는 심봉사의 모습도 상황적 반어

이러한 상황적 반어는 현재의 상황과 리리되고 +&- 가 공존하는 상황적 역설이기도 하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흘리오리다

표현상으로는 반어이지만 상황으로는 반어적 역설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리로운 상황 슬픈 상황과 반대되는, 리리되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행위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역설

역설은 영어로는 패러독스이다 역설 자체는 반어를 포함하는 사고 방식으로

믿기 어려운, 반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역설법 혹은 역설적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은 역설 중 모순 어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정반대의 혹은 양립할 수 없는 말을 짜맞추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는 언어적 표현 자체에서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외로운 항홍한 심사

눈물은 선물이다, 눈물을 선물로 주신다, 부자는 가난하다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너가 그림기에 나는 너를
찾지 않는다 등을 생각하면 된다

③ 대구- 읍수나 읍보 즉 말의 가락이 유사한 말을 대를 이어서 즉 짝을 지어서 제시하는 것

대구의 경우에는 대조나 열거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과도 구분이 필요하다

대구는 비슷한 구절이 대를 이루어 즉 짝을 이루어 나란히 배치되는 것, 병치되는 것으로

앞뒤로 그 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이개 짝이니 저개도 짝이

산에는 산소리

벌에는 벌소리 등이 전부 대구의 예이다

길이나 형식(조사와 어미)가 비슷한 구절이 바로 앞뒤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실전에서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엄밀하게 보자면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더
큰 개념이다

통사 구조의 반복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시험에서는 조사나 어미가 유사한 경우가 등
장한다. 대구보다 넓은 이유는 이 반복이 반드시 바로 앞뒤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리도 없이 떨어진다가 나오고 한참 뒤에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 등은 대구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3개 이상이 등장하면 그것은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보자(물론 3개 4개 5개 등을 묶어서 대구로 보는 시
험도 있으나 대구 자체가 '구절'이 서로 맞대어 있는 것으로 2개로 한정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한다요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한다요

서리발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한다요 등이 대표적이다

핵심은 두 구절이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앞뒤로 대응' & 같은 위치에 거의 같은 조사와 어미의 사용!

이렇게 대구법과 통사구조의 반복을 구분했다면 이제는 대조법과 열거법과의 구분이 필요하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대구법이자 대조법이다

대조법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서로 반대되는 구절과 내용을 맞대어 강조하는 표현법이다

대구는 내용이나 뜻과는 상관없이 어세가 비슷한 구절을 맞대어 표현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열거와의 구분이 필요하다

열거는 대구와는 다르게 짝을 맞추겠다는 고민 없이 그냥 나열하는 것이 특징이다

결구형에는 트와이스 아이즈원 블랙핑크 소나무 구구단이 있다

이렇게 짝 나열하는 것이 열거의 특징이고 짝 맞추지 않아도 된다

열거법은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을 늘어놓는 표현법으로 단어가 아니라 문장도 가능 뒤에서 다시 보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벚꽃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영영 떠나간 벚꽃도 있다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으로 정리하자면

대구는 길이와 형식이 유사한 구절 즉 조사나 어미의 사용이 거의 비슷한 구절이

바로 등장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고

이때 이 구절이 바로 등장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수미상관 등)

혹은 띄엄띄엄 등장하는 경우

ex) 관동가

정월 원일에 달과 노는 소년들은 답교하고 노는데

우리 님은 어디 가고 답교할 줄 모르는고

이월이라 청명일에 나무마다 훈기들고

잔디 잔디 속잎 나니 만물이 화락한데

우리 님은 어디 가고 훈기 든 줄 모르는고를 기억하자!

(원래 대구는 한 행에서 이루어지거나 두 행에 걸쳐 일어나더라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 이렇게 멀리서 아니어도 따로 떨어져 있다면 안된다.)

④ 설의- 의문형 종결 그러나 답을 요구하지 않음, 진짜 궁금한지 고민하면 된다.

설의법은 앞에서도 보았듯 스스로 정서의 표현, 서술 명령 등의 역할을 하는 수사 의문문을 떠올리기

너 여기 오면 되겠니?- 실제 궁금하지 않음

설의법은 주로 독백체와 연결할 수 있다

⑤ 인용- 남의 말, 글 등을 인용 속담 격언 사자성어 모두 인용 가능

이때는 인용격조사 라고 고 등을 잘 사용해야 한다

“상진석해”라고~

이렇게 사용되는 글과 말 사자성어의 경우에는 보조관념만 등장하기에 비유하기로는 풍유법 우의법으로 이런 것을 인용할 때는 인용법까지 보기

⑥ 문답- 주로 자문자답의 선지로 자주 등장한다

문답의 경우에는 객관화의 성질과 주로 연결된다

무름이 어디드냐?

나는 여긴가 하노라를 생각하면 편하다

⑦ 돈호- ~야라고 부르는 것이며 이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주로 등장한다

산아 너는 어찌 그렇게~

돈호법의 경우에는 영탄적 어조와 연결된다

성수야 어디가니?를 생각하면 쉽다

⑧ 생략- 핵심 문장성분을 생략하는 것이다

시험에서는 문장 성분의 생략, 명사형 종결 등을 통해서 여운을 주는 것과 연결된다

⑨ 도치법- 핵심은 어순을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다 너를

목적어와 서술어의 어순을 바꾸거나(본다 너를)

부사어를 용언 앞에 놓는 것이 대표적이다(바라보다 흔들리며)

강조하기- 표현 내용 즉 중심 주제(정서)를 강조하는 역할

① 비교- 두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과 차이점, 보다, 더, 만큼을 기억하자!

너의 님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주인 색시를 생각하면 공중에 있는 달보다도 곱고, 별들보다도 더 깨끗하였다

② 대조- 두 대상을 견주어 정반대의 내용

일반적으로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대비는 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본다, 다만 사전적 정의 등은 이와는 다르다

cf) 대비는 대조와 비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주 등장, 핵심은 2개, 이 두 개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드러낼 때 대비를 사용한다

색채 대비- 색이 두개!

③ 열거- 열거의 경우에는 단어와 구절을 나열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한국에 걸그룹에는 트와이스, 잇지, 레드벨벳, 아이즈원, 우주소녀, 오마이걸, 마마무가 있다. 짝을 이루어, 대를 이뤄 나열하는 대구와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특히 구절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자

그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벚꽃도 있다

그리는 동안에 마음이 변해버린 벚꽃도 있다

또 강조하기 중에 반복과 약간의 구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같은 구절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열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는 너를 본다, 나는 너를 본다, 나는 너를 본다- 반복, 열거는 어려움

나는 너를 본다, 나는 그녀를 본다, 나는 그 사람을 본다- 통사구조의 반복, 열거 가능

④ 라장- 머리 위에서 축구를 해도 괜찮겠다

라장을 더 크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더 작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물의 수량 성질 상태 등의 내용을 실제보다 더 크거나 작게 표현해 강조하는 것이다

작게 표현하는 것은 간이 공알만 해졌다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라장은 고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해학적 표현의 핵심

cf) 해학적 표현

웃음을 자아내는 표현, 라장, 언어유희, 어울리지 않는 언행으로 기억

라장은 머리가 이만평, 어울리지 않는 언행은 마음이 답답해서 창을 내겠다, 언어유희는 도치(바람만 아라 문들여온다), 동음이의어(이도령인지 삼도령인지), 유사한 음운의 반복(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니 서방인지 남방인지)

cf2) 풍자- 빗대어 비판

⑤ 반복- 운율을 만드는 핵심이다,

운은 특정한 음운의 반복- ㄴ ㄹ ㄷ ㅅ

동일한 위치에 일정한 음운의 반복, - 두운 각운 모운

음절 수의 반복,

음보,

시형 시구의 반복- 가장 대표적

동사구조의 반복- 수미상관도 여기에 들어간다 등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동사구조의 반복은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고 대구와는 다르게 바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단순히 주어 서술어보다는 조사나 어미가 거의 비슷한 경우에 문제로 등장한다

ex) 눈이 나린다/ 눈이 날린다/ 눈이 쌓인다/ 눈 속에 태고기가 있다/ 눈 속에 오막살이가 있다/ 눈 속에 내 어린 시절이 있다

⑥ 영탄-

영탄법은 감탄사(아) 감탄형 종결어미(구나 등)를 사용할 때 가능하다,

다만 이것이 앞서 정리한 것처럼 표현상의 특징과 연결되면 설의법과 돈호법이 사용되었을 때 영탄적 어조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탄은 감탄도 있지만 한탄도 가능하다, 한탄은 정서와 어조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감정이 격해지고 후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⑦ 점층-

점층은 점층과 점감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점층의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낮은 것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경우에 자주 등장한다. 핵심은 의미가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는

눈의 생명력이 점차 강화되는 것으로 점층이다

점층적 반복이라는 표현도 문학 개념어와 선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문학 개념어 상 앞에 수식어구가 점차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도 점층

명덕을 발휘하려면 먼저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 집의 질서를 잡으며, 그 집의 질서를

잡으려면 그 몸을 닮을지니라(점강, 점강은 점총과 반대 방향으로 구절의 내용이 작아지고 약해져서
고조된 정서를 점점 가라 앉게 하는 것)

⑧ 억양- 여수장 우중문 시 같은 상승과 하강의 의미를 기억하자

앞 뒤의 어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생각, 칭찬하고 경고하거나 결함을 말하는 것 혹은 경고하
나 결함을 말하고 칭찬하는 것 등이 대표적, 각각 부드러운 분위기를 주거나 겸손함을 주는 것이다

⑨ 연쇄- 앞의 내용을 이어가는 것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연쇄는 대구와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대구는 구절이 맞대어 있는 것으로 연쇄법과는 다르다

달아 달아 우지 마라,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가 대표적

⑩ 미화- 어떤 대상을 실제보다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 부정적 대상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 등장할
수 있는 내용

도둑을 대들보 위에 있는 군자 즉 양상군자로 표현

<표현법 중 기타>

①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

화자의 처지나 정서를 나타낼 때 자연물이나 사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대상에 기
대어 표현할 때 그 대상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시는 주체의 정서를 표현하는 문학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상관물의 유무가 아니라 객관적 상관물의 양
상을 나누어 정리하는 학습을 해야 한다

대조- 정반대

투영의탁- 투영은 정서를 담는 것, 의탁은 대상에 기대어 정서를 표현하는 것

감정이입- 투영과 의탁의 하위로 생각하면 편하다, 감정이 동일시, 정서 표현이 핵심!

대조는 우리왕의 시조처럼 화자의 정서와 정반대

투영과 의탁에는 매우 다양한 양상 대조와 감정이입 배고 전복 투영과 의탁으로

정서를 환기& 매개체

고향 가까운 곳에 연기가 난다

정서 전달의 매개체

뭉치들 꺾어 내어 님 계시는데 보내드리니

화자의 분신

풍월이 되어 우리 님 계시신 곳에

처지 동일시

저기 빈배만 걸려있네

기원의 대상

달아 높이쯤 돋으셔 우리 님 계시신 곳에

등으로 정서의 투영과 의탁을 나눌 수 있다

감정이입

감정의 동일시, 감정을 투영하는 것, 이렇게 보면 감정의 투영과 의탁의 하위범주로 볼 수 있다.

다만 실전에서는 앞서 정리한 의탁과 투영 즉 정서와 상황을 담은 모든 대상라는 다르게

훨씬 더 제약적인 경우에 감정이입으로 선지 등장.

반드시 대상의 감정이 드러나고

인물의 감정이 확인되고

인물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동일할 때 감정이입으로 서술된다.

화자의 정서와 처지가 슬프고 안타까움

시냇물이 운다 이렇게 등장하면 감정이입

②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추상적인 시간이나 사랑 같은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서술하는 것

님이 오신 저녁 시간들 굵이굵이 꼬리라 등의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